

< 간이투자설명서 >

(작성기준일 : 2021.11.10.)

에셋플러스글로벌리치투게더퇴직연금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 [펀드코드 : AW943]

투자 위험 등급 2 등급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 을 감안하여 2 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 예금자보호법 』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 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60%이상 을 주로 미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중국, 홍콩, 한국 등에 장기투자 합니다. 따라서 주식시장 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가격변동위험 에 노출되며, 외화로 표시된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므로 환율 변동 위험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에셋플러스글로벌리치투게더퇴직연금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div> <p>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혁신기업 및 고부가 소비재 기업을 주로 편입하는 에셋플러스 글로벌 리치투게더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상승에 따른 장기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p> <p>※ 이 투자신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 투자신탁'입니다.</p> <p>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주로 미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영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중국, 홍콩, 한국 등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서, 주로 전세계 신흥부자들의 소비가 집중되는 하이엔드산업(High-end Industry)의 기업들을 투자대상으로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p> <p>(1) 주식 운용전략</p> <p>1) 투자대상기업</p> <p>이 투자신탁은 물질적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혁신기업과 고(高)차원의 소비문화를 주도하는 고부가 소비재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장상황에 따라 적절한 자산배분전략으로 시장변동 위험에도 대응할 계획입니다.</p> <p>① 물질적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혁신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물질적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기업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내수기업 <p>② 고차원의 소비문화를 주도하는 고부가 소비재 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소비에서 벗어나 감성적 효용과 사회적 가치 등 고차원의 소비문화를 창출하는 기업 -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정통성을 바탕으로 소비문화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업 <p><주요 투자대상국가 현황></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미국</th><th>프랑스</th><th>스위스</th></tr> </thead> <tbody> <tr> <td>통 화</td><td>USD(달러)</td><td>EUR(유로)</td><td>CHF(스위스프랑)</td></tr> <tr> <td>GDP(명목)</td><td>\$21.4 조</td><td>\$2.7 조</td><td>\$0.7 조</td></tr> <tr> <td>GDP 증가율(실질)</td><td>2.3%</td><td>1.3%</td><td>0.9%</td></tr> <tr> <td>1 인당 GDP(명목)</td><td>\$65,112</td><td>\$41,761</td><td>\$83,717</td></tr> <tr> <td>인 구</td><td>약 3 억 3 천 1 백만명</td><td>약 6 천 5 백만명</td><td>약 8 백 7 십만명</td></tr> <tr> <td>주요산업</td><td>3 차 산업 80% 2 차 산업 19% 1 차 산업 1%</td><td>3 차 산업 79% 2 차 산업 19% 1 차 산업 2%</td><td>3 차 산업 74% 2 차 산업 25% 1 차 산업 1%</td></tr> </tbody> </table> <p>기준: 2019 년, 자료: IMF, Bloomberg, 통계청, CIA Factbook</p> <p>2) 에셋플러스 조사분석시스템</p> <p>기업분석을 통해 장기적으로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고르기 위해 아래 그림의 5 단계를 거쳐 투자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분석기업의 제품이 장기적으로 계속 존재해야 투자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경쟁업체들과의 관계에서 분석기업의 몫이 증가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통해 분석기업이 가질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걸러내고, 이익 창출의 원동력을 파악합니다.</p> </div>	구 분	미국	프랑스	스위스	통 화	USD(달러)	EUR(유로)	CHF(스위스프랑)	GDP(명목)	\$21.4 조	\$2.7 조	\$0.7 조	GDP 증가율(실질)	2.3%	1.3%	0.9%	1 인당 GDP(명목)	\$65,112	\$41,761	\$83,717	인 구	약 3 억 3 천 1 백만명	약 6 천 5 백만명	약 8 백 7 십만명	주요산업	3 차 산업 80% 2 차 산업 19% 1 차 산업 1%	3 차 산업 79% 2 차 산업 19% 1 차 산업 2%	3 차 산업 74% 2 차 산업 25% 1 차 산업 1%
구 분	미국	프랑스	스위스																										
통 화	USD(달러)	EUR(유로)	CHF(스위스프랑)																										
GDP(명목)	\$21.4 조	\$2.7 조	\$0.7 조																										
GDP 증가율(실질)	2.3%	1.3%	0.9%																										
1 인당 GDP(명목)	\$65,112	\$41,761	\$83,717																										
인 구	약 3 억 3 천 1 백만명	약 6 천 5 백만명	약 8 백 7 십만명																										
주요산업	3 차 산업 80% 2 차 산업 19% 1 차 산업 1%	3 차 산업 79% 2 차 산업 19% 1 차 산업 2%	3 차 산업 74% 2 차 산업 25% 1 차 산업 1%																										

	<p>주 1) “책임운용인력”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이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p> <p>주 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주 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p> <p>주 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 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의미합니다.</p>												
투자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위험	<table><tr><th>구분</th><th>투자위험의 주요내용</th></tr><tr><td>원본손실위험</td><td>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td></tr><tr><td>가격변동위험</td><td>이 집합투자기구는 주식형 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대상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변동에 따라 주식 또는 채권 등의 가치가 급격히 변동될 경우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td></tr><tr><td>금리변동위험</td><td>신탁채산을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권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적격등급의 채권 또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채권금리의 변동에 따라 채권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하여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여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td></tr><tr><td>환율변동위험</td><td>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외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하므로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이 모투자신탁 외화자산의 원화 환산 평가액 중 50% ~ 100% 수준에서 통화선물(환)거래로 환위험 헤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환헤지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회피가 목적이며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td></tr></table>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가격변동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식형 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대상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변동에 따라 주식 또는 채권 등의 가치가 급격히 변동될 경우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신탁채산을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권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적격등급의 채권 또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채권금리의 변동에 따라 채권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하여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여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외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하므로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이 모투자신탁 외화자산의 원화 환산 평가액 중 50% ~ 100% 수준에서 통화선물(환)거래로 환위험 헤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환헤지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회피가 목적이며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가격변동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식형 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대상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변동에 따라 주식 또는 채권 등의 가치가 급격히 변동될 경우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신탁채산을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권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적격등급의 채권 또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채권금리의 변동에 따라 채권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하여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여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외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하므로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이 모투자신탁 외화자산의 원화 환산 평가액 중 50% ~ 100% 수준에서 통화선물(환)거래로 환위험 헤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환헤지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회피가 목적이며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매입 방법	1) 17 시 이전: 제 3 영업일 기준가 적용 2) 17 시 이후: 제 4 영업일 기준가 적용	한매방법	1) 17 시 이전: 제 4 영업일 기준가 적용, 제 9 영업일 지급 2) 17 시 이후: 제 5 영업일 기준가 적용, 제 10 영업일 지급										
한매 수수료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assetplus.co.kr) · 판매회사 ·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과세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자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 (대표번호 : 02-1544-7878 / 인터넷 홈페이지 : www.assetplus.co.kr)												
모집[판매] 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 조좌(집합투자규모상 설정가능좌수)										
효력발생일	2021 년 12 월 29 일	콘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assetplus.co.kr)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및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